

지역 매아리

김제시, 2019 농업기계박람회
기업유치 홍보 활동 만전

김제시는 오는 11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김제 벽골제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9 김제 농업기계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제의 매력을 알리는 기업유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 김제농업기계박람회 제1전시장에 운영될 기업유치 홍보 부스는 참가업체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김제시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 및 보조금 지원 제도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하여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사전에 참여업체 240여개 기업들에 김제시의 투자 환경과 보조금 지원 제도를 사한문 및 홍보물을 발송하여 유치활동을 시작하였다.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의 분양률은 88.6%로 85개 기업이 입주하여 52개 기업이 활발히 가동 중이며 33개 기업은 건축 및 설계중으로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다.

산단내에는 국가연구원인 IT융합농기계센터, 뿌리기술지원센터가 입주해 있어 농기계 성능 및 신뢰성 평가, 기술개발지원, 녹색 뿌리산업 제조공정 고도기술지원 등 농기계 및 뿌리기업의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용진읍, 하반기 체납세 징수 총력

완주군 용진읍이 하반기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21일 용진읍은 내달 30일까지를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용진읍은 모든 체납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4개 반을 편성해 매주 1회 이상 새벽출장, 마을별 담당직원을 통한 체납세 독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용진읍의 전체 체납액(지방세, 세외수입)은 6억3700만원으로 1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는 직접 방문해 정확한 실태분석 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정재조 용진읍장은 "관의 출장자를 편성해 관의 거주자 중 고질적인 체납자를 추적과약해 체납 독려, 세외수입 체납 원인을 분석, 맞춤형 징수를 펼칠 계획이다"며 "성실한 납세의무를 실현을 위해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체육회 민간인 회장 선출

선거인 후보자 추천 마감 12월 21일까지 후보자 4~5명 출마 예상자들 발걸음 빨라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현재 박준배 시장이 체육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제시체육회도 내년 1월 첫 민간인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김제시체육회 민간인 첫 회장 선출에 '자천타천' 도전장을 던진 후보자 4~5명의 출마 예상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출마 예상자 가운데 한유승 김제시골프협회 회장의 행보가 가장 눈에 띄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의 복심으로 알려진 한유승 회장은 민간인 첫 김제시체육회 회장 선거 출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출마를 확정짓고

물밑작업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고성곤 전 김제시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최근 출마를 결심하고 물밑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고 백재운 김제시체육회 부회장은 강력히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김광선 김제시복합협회 명예회장이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일찌감치 출마에 무게를 두고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류재규 김제시유도협회장도 출마를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대한체육회가 전국 시·도 체육회에 보낸 세부일정에 따르면 체육회장 사임일인 2020년 1월 15일을 선거일로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설치(11월 21일까지),

선거일 공고(11월 26일), 선거인 후보자 추천 마감(12월 21일), 선거운동기간(2020년 1월 5~14일)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제시체육회는 지자체 인구 5만 이상~10만 이하의 경우 대의원 100이상 확보 규정에 따라 현행 대의원에 종목별 산하 조직의 대의원을 추가해 총 100명~200명 가량의 선거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회장 선출 방식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유효표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회장선거 출마자는 2천만 원(체육회 자율결정)을 기탁해야 하며 총 유효 득표수의 20% 이상을 얻어야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행복콜버스 마을 운행 확대

완주군 "상관, 소양, 구이지역 연중무휴 어디서든 이용가능"

교통복지 1번지 완주군의 행복콜버스가 확대된다.

21일 완주군은 상관면, 소양면, 구이면 일부 마을에서 운행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행복콜버스를 오는 2020년 1월부터 전 마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9월부터 도입한 상관, 소양, 구이지역 행복콜버스가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면서 주민들이 마을 확대 운행을 요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마을운행 확대를 위해 상관, 구이지역에 운행하는 행복콜버스를 각 1대에서 2대로 추가 운행할 계획이다.

운행방식은 주민 요구에 따라 운행하되 현재 운행하고 있는 마을은 기존대로 행복콜버스 승강장(표지판)에서 이용가능하고 신규 운행마을은 해당마을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이용 가능하다.

또한 해당마을에서 각 소재지까지의 1회 이용료는 500원이며, 출발지에서 1시간전 사전예약제로 운행된다. 운행시간은 0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중무휴로 운행한다.

완주군은 행복콜버스 확대에 따라



주민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당 마을 이장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현수막, 스티커, 명함 등 홍보물을 제작해 마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소양, 상관, 구이지역 행복콜버스 운행확대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전주시내버스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교통카드 결제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의회, 현장 중심 의정활동 혈세 110억 절감

관내 주요 사업장 4개소 점검, 차질없는 사업 추진 당부

김제시의회(의장 운주현)는 제23회 임시회 기간 중인 21일 관내 주요 현안 사업장 4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시의회는 전체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현안사업으로 논의되고 있는 수영장 방수 및 타일교체공사를 시작으로 김제육교 재가설공사,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각 현장 방문지에서 시의원들은 관련 공무원과 공사관계자로부터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방안 및 대안 모색을 위한 활발한 토론 등을 통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올해 8월부터 체육공원 내 실내수영장에 대하여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방수 및 타일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2억 수명장인 생활발착형 국민체육센터를 110여억원을 투자하여 신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시의회에서는 중북투자로 인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지난해 5월부터 착공한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로 인한 동부권 시민들의 교

통 불편 및 김제역 주변 상권 위축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임시개통 등 공사 시행 단축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요청과 향후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운주현의장은 주요사업 추진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의견 등이 사업에 반영되어 원활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도 지속적인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예산 심사를 철저히 검토하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의회 상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제13회 금구면민의 날' 면민의 장 수상자 확정

김제시 금구면(면장 서재영)에서는 지난 18일 제13회 금구면민의 날을 맞이하여 금구면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 금구면민의 장 수상자를 확정했다.

금구면민의 장은 관내 기관·사회단체 및 마을 이장 등으로부터 면민의 장 수상 대상자를 추천받아 엄정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끝에 공

익장 부문에 이상환(60세)씨를 수상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공익장에 선정된 이상환씨는 황산면에 위치한 삼진라인 대표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금구면 발전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며 금구면의 발전과 면민 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평소 금구면민의 칭송을 받는 분으로 면민의 장 공익장 부문에 추천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서재영 금구면장은 "2019년 금구면민의 장으로 선정되신 수상자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수상 대상자의 훌륭한 삶이 귀감이 되어 훈훈한 금구면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금구면민의 장 시상식은 오는 11월 2일 금구초·중학교 운동장에서 열리는 제13회 금구면민의 날 행사에서 면민 5,000여명의 축하 속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조호물품 무상 지원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치매어르신을 돌보는데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김제시에 거주하는 치매어르신 중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어르신이다.

등록이 돼 있지 않은 대상자라면 당일 신분증과 치매치료 약 처방전 또는 의사소견서 등을 지참하면 치매안심센터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과 함께 조호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조호물품으로는 보습로션, 바디워시, 영양제, 약달력, 요실금팬티 등의 물품이 있으며 추후 보다 다양한 물품이 추



가될 계획이다. 아울러 김제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조호물품 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치매치료약제비 지원, 조기검진비 지원, 배회 및 실종방지를 위해 배회인식표 및 지문등록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제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63-540-4978, 2937)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평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